

##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문 닫나

20일 도의회 도정질문서 시내면세점 문제 등 제기  
매년 40억원 적자... 원 지사 "철수 전제 대책 마련"  
이경용 의원, 새 수익모델 '한라산 모노레일' 제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이 철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또 제주관광공사의 새로운 수익사업모델로 '한라산 모노레일'이 제안돼 설치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경용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서흥·대륜동)은 매년 4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내고 있는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따져 물

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신화월드에 위치한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2016년 44억원, 2017년 45억원, 2018년 38억원, 2019년 40억원(추정)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관광공사의 재정위기가 계속되면서 제주자치도가 최근 3년간 약 90억원을 지원했지만 적자 해소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날 원 지사는 "(제주관광공사)의 주요 적자 원인은 시내면세점이 당시 출발 상황과 목표, 경제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실상 좌초하면서 적자가 많이 쌓인 것"이라며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자 했던 것은 도지사의 결정이었고, 결과론적 책임을 지는 것도 도지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 위험한 투자였다"면서 "사드 이전에 중국관광객을 겨냥한 오픈에 의해 너무 무리한 사업확장을 한 것이고, 결국 항만면세점은 운영도 못해보고 있다"고 질타하며 향후 대책을 물었다.  
원 지사는 "크루즈가 언제 재개될지, 재개된 크루즈가 관광공사 시내면세점으로 연결될지 이것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여기서 도민 세금으로 계속 적자를 매꾸는 것은 감당하기 힘들다. 현재로는 철수를 전제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제주관광공사에 새로운 수익모델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며 친환경적 '한라산 모노레일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원 지사는 기초적인 검토와 조사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며, 추후 수익형 공론조사 또는 주민투표 사안이라고 답했다.  
원 지사는 "엄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라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이 어디까지 왔는지 충분히 수집한 후 도민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겠다 판단한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도민 의견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올해 또는 내년 초부터는 기초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올해산 감귤 긴급특별단속반 뜬다

도-유관기관 합동 단속반  
선과장·항만·도매시장 점검

올해산 감귤의 제값을 받기 위해선 비상품의 원천 차단과 함께 고품질 출하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감귤 출하 가격이 안정될때까지 비상품 감귤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선과장 등에서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도외지역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지난 19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비상품 감

귤 유통 특별단속반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편성해 모든 선과장, 항만, 도의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극소과·가공용 감귤소득분기점(3800원/5kg) 이하 감귤은 출하하지 않도록 독려, 출하량을 조절하고 상품 감귤이 적정가격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특별단속반은 소비자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비상품감귤 유통 행위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적발되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 제한은 물론 2회이상 적발된 선과장에는 품질검사원을 해촉하는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윤기자

##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본궤도'

제주TP,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산업 연결 제주기업 성장 '선순환'

'국내 1호'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기관인 제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예고했다.  
20일 제주테크노파크(이하 제주TP)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배터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등록이 말소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배터리 회수 권한을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에 위임했다.  
제주TP는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지난 6월 26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개소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을 위한 성능평가와 기초 안전성 검사 주요 장비 구축을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TP 디지털융합센터는 2017년부터 예비 성능평가 장비 도입을 시작으로, 관련 장비들을 활용해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와 향후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할 경우 수명 예측 등을 위해 다양한 시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사고 및 수명이 종료된 차량 69대의 배터리를 회수해 성능검사 및 잔존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재난, 사고 등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소규모 태양광, 풍력발전과 연계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ESS로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TP는 원터치 체결방식을 도입한 배터리 성능평가 장비를 통해 수거된 배터리의 성능평가시험 시간 단축, 관리자의 편의성 향상, 안전성 최적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제품 검증을 위해 올해 초부터 제주기업 2곳과 대기업 1곳을 중심으로 실증용 시제품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사용 배터리의 활용가능성을 증명하고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 제조업, 충전기 연계 서비스업, 전력거래업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는 제주도의 지원으로 도내 기업 3곳을 추가 선정해 소용량 ESS 실증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제주기업들은 국내 재사용 배터리 분야 우수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소용량 UPS, 태양광 가로등 연계형 ESS를 개발, 2020년부터 본격적인 산업화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 사랑의온도탑 제작

'희망2020나눔캠페인' 출범  
올해 47억8000만원 모금 목표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제주도민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20일 시작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이날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원희룡 지사와 김희현 제주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희망2020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작식을 개최했다.  
사랑의 온도탑은 이웃에 대한 따뜻한 정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캠페인이 끝나는 내년 1월 31일까지 자리를 지킨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 목표 모금액은 47억8200만원으로, 지난해 목표액보다 1.5% 늘었다.  
온도탑 온도는 목표액의 1%인 4782만원이 모일 때마다 1℃씩 올라가며 목표액을 모두 채우면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한다. 성금은 지역 저소득층 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일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희현 제주도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자치도청 4층 탐라홀에서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희망2020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작식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된다. 이상민기자

이웃,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등지에 전달된다.  
전화(☎060-700-0077)나 도내 금융기관, 약국,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사랑의열매 모금함 기부 등

으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 동안 모금회도 접수 창구를 마련해 성 기간 도내 방송사와 제주사회복지공

동모금회도 접수 창구를 마련해 성 기간 도내 방송사와 제주사회복지공

7면... 불복체인 허브도시를 꿈꾸다 / 9면... 키워드로 읽는 중국문화

Let's Lead the Future through Innovative Assessment

## 평가혁신으로 미래를 말하다!

### 2019 제주교육 국제심포지엄

Jeu International Symposium on Education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

2019. 11. 22.(금) ~ 11. 23.(토)

[13:00 ~ 18:00] [09:00 ~ 12:10]

22일 기조강연

오세정 서울대 총장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재양성'**

23일 기조강연

사바쿠마리 IBO 회장

**'미래사회 핵심역량 중심의 IB교육 프로그램'**

주제발표 및 토론1

미래교육을 위한 리더십 혁신 - 캐나다 학교장 리더십 중심-

발표자: Camille Williams-Taylor 오타와 캠티윌리엄스 교육장 좌장: 양정숙 영평초교장 토론자: 강옥화 탐라교육원부장, 고용철 제주고교장, 우옥희 대정고교장

주제발표 및 토론2

미래교육을 위한 혁신학교의 과제

발표자: 서길원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좌장: 이인희 제주대학교교수 토론자: 최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관, 김상진 애월중 교장, 박상현 수원초교사

주제발표 및 토론3

미래역량 중심 평가방향 - 2015 개정교육과정 평가와 IB 평가-

발표자: 조지민 KICE 본부장, Paula Wilcock IBO 평가총괄 책임자 좌장: 이혜정 교육과학기술연구원 좌장: 임영구 NCLCS 교사, 정영훈 대정고교사

주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후원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